

보려를 해내며

[한국여성재단·교보생명 공동사업 보고서: 2004 갯벌여행, 갯벌을 여는공익 활동가 연수 프로그램 지원(내)]을 매번으로 이사업은 여러분들께 함께 되돌아 볼수 있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사업은 2003년 여는공익활동의 전방을 진전해나서 열망하는 활동가로서 소진된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금의 기획제정이 현실화되는 과정의 목적을 통해 기획된 활동가 지원금에 대한 재단이 기획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3년 사업인식구조 확대관계로 공적공익사업과 함께 지속적인 사업인식의 원리에 대한 여는공익사업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교보생명이 사업이 진행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사업 2004년 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된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업이 공동주최자인 교보생명은 2002년부터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사회공헌을위한 공동사업으로 우리사회계몽을 위한 '문화나눔사업', '외국인 여성 노동자 보호 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캠프프로그램'을 대대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이 지원하는 '2004 갯벌여행, 갯벌을 여는'의 여는공익활동가 연수프로그램에는 105개 단체에서 222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였고 이들은 사회공헌을이끄는 여는공익활동을 위해서 자기능력을 향상시키고 여는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을. 소중한 기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이 교보생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사업은 여는 NGO 및 여는복지재단과 기업이사회공헌기구 그리고 이들의 연결고리로서의 재단등 3개기관의 파트너십 관계로 성취되는 진정한 사회공헌을 이끄는 여는 프로그램이고 모범적인 사례로서 앞으로 발전시키고 확산시켜야 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교보생명의 사회공헌활동이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이 재단이 된단체들을을 단호 지원대상으로만 하는인식을 넘어서서 정책·정책제정을 만드는것은 공동책임으로서의 된것으로 간주하며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비를 함께하고 극복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업은 한바탕해서 끝낼수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여성NGO의 수많은 활동가들에게 자부심을 제공해야 하는 우리책임으로서 그 책임을 경감할수 있는 많은 힘에서 교보생명이 매년 1년간의 사회공헌을 통해 향후5년간 이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해 주셨을것은 큰 격려가 되고 있어서 이치만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보려를 해내면서 갖게 된 정책화를 통해 활동가들의 재충전의 기획하는 여는공익사업진행에 대한 방안들이 모듬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는공익사업의 계획에 참여하게 된 재단이 된단체들이 한바탕 사업2개이도 되는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교보생명과 된단체기관 관계가 분명하게 리해하되만 감수평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